



김승수 전주시장이(왼쪽 네번째) 지난 22일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시 한 청년 창업기업이 신제품으로 내놓은 물걸레청소기의 출시를 기념해 1호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의 성장을 기원하고 있다.

전주시, 중소기업 기 살리기 나섰다

김 시장, 창업기업 신제품 물걸레청소기 1호 구매 등 제품 홍보대사 역할 토크

전주시가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을 가장 먼저 구입하면서 힘을 북돋아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2일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 지역 한 청년 창업기업이 신제품으로 내놓은 물걸레청소기의 출시를 기념해 1호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의 성장

을 기원했다. 해당 기업은 전자부품연구원 예코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한 청년 창업기업으로 오랜 연구 끝에 화학성제 없이도 수돗물과 소금만 넣으면 천연살균수가 만들어져 유해세균을 제거하는 특허제품을 개발, 올해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시는 이 업체에서 생산한 10대의 물걸레청소기를 별도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우수한 기술의 신제품을 출시하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

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 중소기업의 신제품 1호구매자를 자처한 김 시장은 기업 기 살리기 기업 방문 중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애로사항을 접하고, 전주시 지역 기업이 처음 출시하는 제품만큼은 전주시에서 직접

첫 구매자가 돼 이용하고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겠다"라며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판로를 찾고 매출이 늘어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올 한해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성과 어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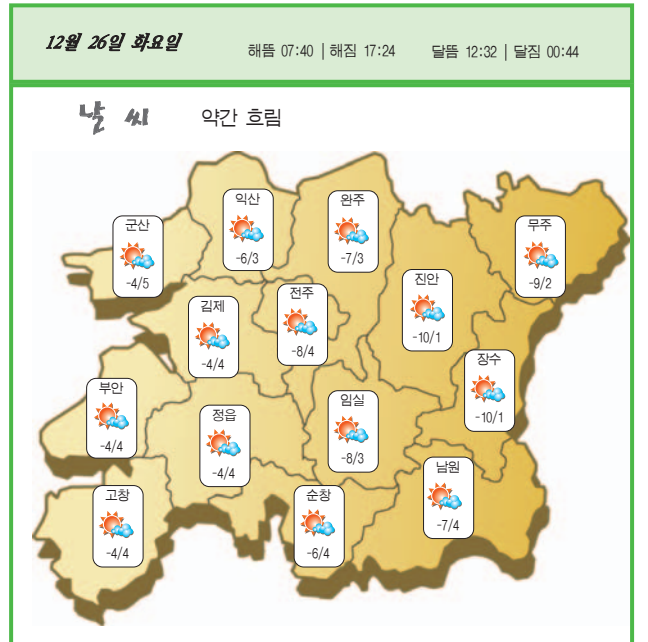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보고회·평가회 열고 프로그램별 운영사례 발표

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상규)은 지난 22일 전주교대 마음연구실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회를 실시했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최경은(전주교대

실과교과과) 교수는 필수프로그램 추진결과를 보고했으며, 최형민(순창고 주장익은마을)팀장, 송선화(교동원광 어린이집)원장, 최웅(대리초등학교)·하준영(군산당북초등학교)·양미혜(정음보성초등학교) 교사는 프로그램

별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서령(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교실 학습지원, 전주부설초), 신희진(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 프로그램, 전주동북초), 김민섭(

덧밭·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교동원 광어린이집), 나하연(가정식생활가이드 프로그램, 전주진북초) 학생과 하준영(식생활교육지원사업, 군산당북초)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경은 교수는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신 49개 운영기관과 44명의 자문위원, 14곳의 체험공간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대 이승준 교수 연구 세계가 주목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 판 등재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융합과학기술학부 마린엔지니어링전공 이승준 교수(36·사진)가 전공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 발행기관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년판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



에서 발간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명기관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인명정보기관(ABD)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이승준 교수는 SCI급 28편을 비롯해 국내외 총 45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10회에 걸친 각종 수상 및 2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산=김관민 기자

"도교육청 인사발령 축하물품 안받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인사 발령시 축하물품 안 받기운동을 당부했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사 발령과 관련, 계약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화환, 떡, 음식물 등을 금액과 관계없이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결

재권을 가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송별회 등에서 선물,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주의할 것을 밝혔다. 다만, 동료 공무원 사이에서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의 금품 제공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대입 정시지원 설명회 성료

2018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전주대 예술관 J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며, 대교입 대표강사인 강세웅 임실고 교사, 최승후 파주문산고 교사가 나와 대입 정시 분석과 전북권, 수도권 대학 지원전략을 소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